



한국, 중국, 일본 물류장관회의의 정례화 합의

3국간 통관절차 간소화 등 공동 추진키로 합의



김장관은 이와 함께 3국간 통관절차 간소화, 화물차량 상호 주행, 전자 문서·물류시설 및 장비의 표준화 등 공동 추진 사항을 실천계획으로 정해 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3국은 장관회의와 병행해 민간의 참여를 위한 포

동북아 물류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물류장관회의가 정부간 공식 채널로 매년 정례적으로 열린다.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은 9월7일 신라호텔에서 리성린(李盛霖) 중국 교통부장, 키타가와 카즈오(北側一雄) 일본 국토교통성 대신과 첫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갖고 앞으로 정부간 공식 채널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내년 물류장관회의는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현재 3국간 개최되고 있는 물류에 관한 협의회를 단계적으로 물류장관회의와 연계시키고, 물류장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을 적절한 형태로 한·중·일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럼·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3국의 물류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현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김장관은 이번 장관회의를 바탕으로 향후 러시아, 아세안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체의 물류효율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3국 물류장관회의 개최 의의와 관련 김장관은 “한·중·일은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서 역내 교류가 연평균 14%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물류부문에서의 장벽으로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물류장관회의는 3국간 물류 장애요인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상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동북아가 막힘없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방형 물류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로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